



< 녹취 문 >

과제명	2025년 미추홀학산문화원 <‘옛’동양제철화학과 학익동, 용현동 일대의 변화>		
구술자	(한국유리 학익동 창고) 지무환		
면담자	곽은비	면담지원자	-
면담일시	2025. 10. 14.	면담장소	제물포역 지하도상가 열린공간
녹취문 작성자	곽은비	회차	1회차 (사전인터뷰)

1. 시작멘트 : 일시 및 연구진 소개 (00:00:00~00:01:10)

곽은비: 저는 곽씨인 곽은비 은비고요. 이번에 제가 지금 미추홀 학산문화원이라고 인하대학교 후문에 옛날 용현 1·4동 동사무소 건물에 그 회사가 있고. 저희가 원래 이 일대의 오래된 어른들의 기억이나 이런 것들 좀 사라져 가는 기억들 같은 거를 조금 모아서 책으로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공공기관이고 그래서 원래 지난번에 했던 거는 승기천 인터뷰 해가지고, 승기천 주변에 사시던 분들 인터뷰해서 책을 만들기도 하고, 바로 재작년에는 송의 목공예 상가의 목공장인들 그리고 작년에는 여기 이제 인천기계산단이라고 하잖아요.

그쪽을 인터뷰했는데 올해 주제가 그 동양제철화학 있는 동양화학이랑 그 일대 학익동 용현동의 공장지대에 오래 근무하신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때 그 공장 지대에 일하실 때 어떤 식으로 좀 공장이나 회사들이 운영됐는지 일하시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주변 풍경이 어땠는지 등을 조금 이렇게 인터뷰에서 내용을 수집해서 좀 이야기랑 책으로 조금 수정해서 만들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2. 구술자 개인신상 소개 (00:01:11~00:06:37)

지무환: 내가 동양화학부터 얘기할게.

곽은비: 네 그러면. 사전 이거 제가 선생님에 대한 기본 정보를 몇 개 여쭙봐야 돼서 혹시 선생님 그럼 몇 년생이세요?

지무환: 내가 호적에 48년생 5월 18일로 돼 있어요. 이북에서 넘어와서 내가 본래 신의주에서 태생인데 여기에 인천 넘어와가지고 이것저것 다 했기 때문에

곽은비: 48년생이시고



지무환: 58년도 있고

곽은비: 제가 한문만 적어가도 될까요? 저희가 한문 동명이인이 있다 보니까

지무환: 한문을 저기 쓰기가 아마..

곽은비: '지'자는 아는데 '무'자도

지무환: 무자도 호반 무(武) 많이 쓰지. 굳셀 환(桓)자는 별로 안 써서요.

곽은비: 그러네요. 한자 처음 보는 한자네.

지무환: '지(智)'자가 이게 만성이 아니에요. 본래 지 씨가 지혜 지 씨 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마 지 씨가 10명 있다고 그러면 한 사람 정도가 지혜 지 씨를 쓸 거예요.

곽은비: 그래서 지무환 선생님이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일을 하고 있어서 년생이랑 원래 그럼 선생님 인천 분이세요?

지무환: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피난 왔는데 피난 와서 정착한 데가 인천이랑 마찬가지로요. 6.25 일어나고 뭐 어찌고저찌고 해서. 우리 아버지가 인천역에 근무하게 됐으니까 인천에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나왔으니까 결국은 인천에서 다 생활이 끝난 거죠.

태어날 때만이 신의주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신의주에서 태어나서 서울에 조금 있다가 그다음에 인천에 왔었는데 왜 서울에 있었냐면 아버지가 서울 영등포역에 맨 처음에는 거기를 근무를 했어요.

근데 거기 근무했는데 무슨 일이 있냐면 이젠 잘 모를 거예요.

옛날에는 해방되고 나서 나라가 정부가 수립되기 직전에는 영등포역에 근무할 때 구내라는 데가 있는데 빨갱이들이 하도 많아 가지고 거기서 인민 재판을, 밤에 인민 재판을 해요.

지무환: 인민 재판인데 우리 아버지는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넘어오고 우리 아버지가 작으신데 인민재판 하는데 이렇게 가서 보니까 뭐 어찌고저찌고 하면서 그냥 사람을 때리고 뭐 거의 죽이고 실신해서 죽으니까 똥소칸에다가 사람 뿌리고 끝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걸 보고 겁이 나니까 그 정거장 거기를 관봤어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이북에서 피난 나왔는 데다가 키는 작고 아무도 없는데 이북말은 쓰고 인민 재판 하는 거 보니까 그 완전히 뭐 빨갱이 천지에서 밤에 특히 밤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거기 관두고 하인천역에 오는 바람에 내가 또 인천으로 같이 아버지하고 같이 온 거죠.

곽은비: 인천에 오신 건 몇 살 때쯤이세요?

지무환: 우리야 어렸을 때니까 맨 처음에 올 때는 1-2살에 저기 이게 이제 48년생으로 돼 있으니까 내가 본래 이북에 있을 때는 46년 5월 18일인데 이거 이제 이북에서 이남으로 넘어오면서 넘어오자마자 뭐 이렇게 모든 게 다 저기가 안 되고 그러니까 하여튼 생년월일은 48년생으로 돼 있는 거야.

그래서 48년을 하면은 인천에 온 게 한두 살 때 왔을 거예요.

한 두 살이나 뭐 이렇게 됐을 때 그때서부터는 계속 인천에 있는 거야.

그리고 피난 왔다 갔다 뭐 이런 거는 저기 뭐야 그 피난 생활은 한 횟수는 2-3년이지만 실질적으로 한 1년 우리가 부산 가서 있었으니까 부산 거제도에 가서 했어요.

뭐 그런 것까지 다 길게

곽은비: 저희 집도 피난 왔는데

지무환: 다 피난왔지. 그 양반은 어디에서 피난 왔어요?

곽은비: 저희가 황해도 웅진 웅진군 할아버지가 무슨 화산동리? 그렇게 알려주셨었는데. 네 맞아요. 근처에 있다가 저희는 배 타고 내려왔다 그랬거든요.

지무환: 우리는 신의주에서 왔으니까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해방되기 전에 넘어갔으니까 아니 해방되고 나서 48년 그 사이야 47년에 넘은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47년이 넘어가고 우리 엄마가 48년 초 47년 말인가 그때 조금 텀이 있더라고 아버지가 조금 일찍 나오고 엄마가 나중에 다 신의주 분들인데 그래서 이남에 정착하면서 사실은 뭐 이남 인천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나 같으면 인천 사람 그리고 인천에 있으면서 이제 제일 먼저 얘기할 게 내가 군대를 71년도 71년도 2월 달에 제대를 했어요. 그래 제대 하고 얼마 안 있어 가지고 동양화학을 들어갔어요. 그때가 71년도 72년도 71년도 여름 초여름인지 이렇게 들어가 갖고 동양화학을 들어갔는데 그때 동양화학이 총원이 한 9천 명이 됐어요.



3. 잠시 동양화학에 근무한 이야기 (00:06:38~00:10:28)

곽은비: 무슨 부서로 들어가셨어요?

지무환: 나는 그때 PV과라 어 백지라는 데 있어요. PV과 백지에서 근무를 한 넉 달 동안 했어요. 그때 제일 큰 부서가 소다 바이트 소다 저기 하는 데가 제일 큰 부서인데, 동양화학도 그때 크니까 부서가 많았어요. 그냥 나만 넉 달 다니고 그랬으니까 뭐 잘 많이 아는 것도 없지

곽은비: 이거 맞아요. PV과?

지무환: PV과 근데 뭐 잘 눈이 안 보이니까. 하여튼 뭐 동양화학 다니다가 무슨 일 있었냐면, 오래 쓰면 그 공장을 정비를 하거든요. 쉬고 정비를 하는데 정비를 하면서 같은 동료들끼리 어울려서 그냥 이리 가도 물려가고 저리 가도 물려다니는 일도 이거 일 저 일 하는데 그때 동료들이 수산고등학교 나온 아이들도 있고. 뭐 이런 아이 저런 애 있는데 난 인천공고밖에 안 나왔지만. 조금 질이 얇다(질이 낮다)고 생각했고 그 사람들이랑 어울리는데 내가 좀 어울려 갖고 좀 골치 아프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갔고. 특히 왜 더 내가 거기를 더 싫어했냐면은 그 사람들이랑 어울려 갖고 끝나면 5시 반에 끝나게 되면 어디로 끌고 가더라고 그래서 끌려가면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거기 개천 쪽도 많은데 뒷골목을 들어가고 또 개들이랑 같이 끌려 들어간다.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가 사창가야 근데 그쪽 후문에서 난 가보지도 않았던 데서 거기 쪽 날아가서 한참 내려갔는데. 아 이거 그런 그 여자들이 그냥 놀다 가라고 그러면서 많이 모자를 쓰고 있으면 모자를 벗기고 뭐 근데 그놈들은 그런 걸 제일 좋아하면서 거기 가서 그래서 내가 거기서 애네들은 어울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한 4개월쯤 돼 갖고 거기를 관렸어요. 그래서 동양화학은 금방 관둔 편이지. 근데 동양화학 분위기가 어떠냐면은 생산 공장이 되고 한 9천 명이 되니까. 아주 출근할 때 보면 복작복작하고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거기 특히 다니면서 생각나는 게 내가 그때 당시에 사동에 살았어. 사동. 그때 사동이면 동양화학까지 오는데 한 45분 와요. 45분. 오는데 거기 걸어 다녀요. 그때 45분 오는데 그리고 그때 임금이 얼마냐면 하루 일당이 340원 하루 일당이 340원인데 한 달 내내 근무하면 만 천 만 한 120원인가 이렇게 될거요.

그때 쌀 한가마니가 거의 1만 원 9천 얼마 이렇게 됐어요.

9800원이나 1만 원 가까이 됐어요. 쌀 한가마니 버는 거야 걸어서 그러니까 그때 임금 페이는 다 그 정도다 이거지. 근데 동양화학이 그때 임금이 센 편이 아니고 큰 공장 지금 한



중간 정도 된 것 같아.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학익동이라는 데 동양화학도 학익동에 있으니까 학익동이라는 데를 첫 발 첫발 디딘 데가 그래서 첫발 디딘 거예요.

곽은비: 그러면 처음 학익동 오셨던 게 그때 71년도쯤

지무환: 그때 동양화학 오면서 학익동을 온 거지.

근데 그전에는 학익동은 어떤 식으로 생각했냐면 국민학교 다닐 때

4. 옛날 학익동의 풍경 및 인천 거주 이야기 (00:10:29~00:17:34)

곽은비: 선생님 혹시 국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디 나오셨는지 먼저 한 번 여쭙볼게요

지무환: 국민학교는 축현국민학교 그때 축현국민학교 한 학생 수가 한 5천 명 됐어요.

곽은비: 그리고 중학교

지무환: 중학교는 송도 중학교

곽은비: 고등학교가 아까

지무환: 고등학교 인천공고

곽은비: 인천공고가 기계공고인가요?

지무환: 지금은 기계공고죠.

곽은비: 진짜 역사 깊은 학교들이 다 나오네요. 그때 국민학교 때 학익동을 처음 와보셨어요?

지무환: 국민학교 때는 학익동을 안 할 수 없는 게 소풍만 가면 거의 송도로 3, 4학년만 되면 송도로 가니까. 그래서 학익동을 거쳐야지 송도가 가게 되니까 그때는 학익동은 아주 시골이에요. 학익동만 딱 나가고 여기 송의로터리만 지나면 시골이야.



저기 축현국민학교는 동인천역 앞에 있잖아요. 동인천역 앞에 있어 배다리 넘어서 배다리에서 조금 더 오면 지금 공설운동장 채 못 오면 벌써 거의 시골이야. 그때만 해도 집이 드문드문 있고 그 논밭이 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학익동을 오면 여기 완전히 깡촌이지 여기만 해도 거기는 사람이 많잖아. 그래서 지금 그때 보면은 지금도 다 육지로 이렇게 돼 있는데 바닷물이 그때는 학익동 저기 뭐야 수인선이 있으면 수인선 열차 있으면 그 수인선 열차에 이렇게 떨어지면 바닷물이 거기까지 들어왔어요.

곽은비: 그리고 지난번에 문화원 담당자 선생님이랑 통화하셨을 때 극동 방송

지무환: 극동방송. 극동방송에 안테나가 거기 바로 저기 물 들어오는 데까지 있었는데, 여기 이렇게 바다면 극동방송 안테나가 여기 이쯤 있었어요.

곽은비: 이거 그리셔도 돼요. 이거 이면지

지무환: 그럴 줄 알았으면 안경을 가지고 올 걸. 안경을

곽은비: 그림으로만 이렇게 그려주셔도 돼요.

지무환: 이게 철길이고 철길이 이렇게 따라서 그냥 이렇게 있으면 이게 다 철길인데 이때 여기 지금 동양화학이 아마 이쯤 있을 거예요. 이렇게 동양화학이 그때는 동양화학이 없었지 동양화학 위치가 여기쯤 되는 거야.

위치에 여기 있으면 극동방송도 여기 동양화학 위치에 있어요. 구석에 내가 알기로는 극동방송이 있나 했어요. 그래서 극동방송에 방송 송출 하면 이 철길이 있으면은 철길이 여기 바로 밑에는 담이 있고 이렇게 있고 바닷물이 여기까지 들어오는 거야.

바닷물이 이쪽에 지금은 이제 길로 하면 이게 도로지. 도로가 옛날에는 좁았어요.

지금은 도로가 좀 넓지만 도로가 좁아 갖고 도로가 이 정도 돼 갖고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저기 옥련동 쪽으로 넘어가는 길이에요.

조개 고개 쪽으로 조개 고개 길이 좁아갖고 이렇게 있는데 물이 여기까지 들어온다고. 그러면 방송 안테나가 여기쯤 있었어요. 요즘 있어갖고 제법 높아 이게 높으니까 맨 위에 뭐가 있었냐면은 금이 그때 있다고 소문이 그렇게 났어요.

우리 국민학교 3-4학년 때 금이 있으니까 그 안테나가 저기 맨 위에 전기도 통해야 되고 송출을 해야 되는데 금이 있다고 그래서 여기를 내가 국민학교 3학년 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여기를 금 때문에 그걸 훔치러 올라갔다가 거기 끝까지 못 가고 금은 못 잡고



사람만 고생을 하고 사람이 경찰서에 잡혀왔다 이런 얘기했는데 금은 도둑질을 못한 거지 그래서 그런 그건 에피소드지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걸 그때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학익동이랑 관련이 있는 거는 소풍 갈 때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학익동은 항상 보고 지나다니는 거야.

그리고 학익동이 우리 지금 얘기를 하다 보면 여기가 바로 이제 학익, 지금 우리 창고고 지금은 저기 뭐 홈플러스 거기서 이제 저기했는데 이게 한 6천 평 정도 돼요. 땅이 6천 평 되고

곽은비: 그러면 창고도 6천 평 정도였어요?

지무환: 창고는 한 2700평 2700평 땅이 있다고 그래서 땅을 다 짓는 거 아니니깐

곽은비: 땅이 6천 평이고 창고는..

지무환: 한 2700평

곽은비: 그러면 또 추가적으로 하나 궁금해졌는데 선생님 인천에 거주하실 때 어디 어디 사셨었어요? 처음에

지무환: 처음에는 어렸을 때 만석동.

곽은비: 만석동 사시다가

지무환: 만석동 살다가 송월동에서 1년 살고 있죠 송월동에서 잠깐 자랐어요. 한 9개월 정도 살았으니까 1년 살고 그다음에 사동 사동에서 15년 살고

곽은비: 몇 년도까지 사신 거예요? 그럼 대충

지무환: 어디 사동에서는 77년도 77년도 저기 뭐야 한 5월까지 살았을 거야.

곽은비: 다음에는 어디 사셨어요?



지무환: 지금 송의동에서 사는 게 지금 거기서 아직까지 사는 거야

곽은비: 그러면 77년부터 현재까지?

지무환: 현재까지 이제 지금 사는 데서 사는 거야

곽은비: 어느 쪽 송의동 사세요? 요 바로 뒤에?

지무환: 지금 여기 저기 뭐야 제물포역 있죠? 네 바로 앞에 그러니까

곽은비: 지금 재개발 들어가지 않아요? 여기?

지무환: 아니 재개발 들어가는 데 말고 우리 집에서 제물포역 오려면 5분도 안 걸려 교통이 좋으니까 이제 제물포에서 살게 돼 갖고 아직까지 제물포에 사는 거지.

만석동에서는 어렸을 때 살았고 만석동은 6.25에 일어나고 나서 한 5살쯤 돼서 정착하기 시작해서 15살까지 살았으니까 만석동에서 제법 오래 산 거야

그래서 만석동 생각이 제일 많이 나 송월동은 한 1년 잠깐 살았으니까 그건 별로 생각이 안 나고 그리고 나 사동은 중학교 3학년 때 와서 내가 30살 때까지 살았으니까.

근데 거기 사동은 거기서 고생도 많이 했고 거기는 내가 별로 그렇게 달갑지는 않아요.

거기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해 갖고

5. 한국유리 입사 및 학익동 유리창고 이야기 (00:17:35~00:37:31)

곽은비: 그러면 그리고 학익동 유리 창고 입사하신 게 그럼 몇 년이신 거예요?

지무환: 그럼 내가 한국 유리에 입사한 거는 그러니까 일용직 생활로 해야 돼요. 한국 유리는 맨 처음에 들어갔다가 마저 일용으로 몇 달이 있어야지 공원이 돼요. 그래서 한국 유리를 내가 72년도 한 12월쯤 들어가서 일용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73년도 봄에 그때부터는 이제 한국유리 일용이니 뭐 공원이니 해서 73년도부터는 직원이 된 거예요. 73년부터

곽은비: 그때부터 창고에 계셨던 거예요? 아니면?

지무환: 아니 나는 본래 내가 이제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나는 어디 있었냐면은 본래가 인천공장 공무부 영선과에 있었어요.



곽은비: 혹시 메모를 해야 해서 영 무슨 과요?

지무환: 영선과

곽은비: 영선과 뭐 하는 곳이에요?

지무환: 영선과가 뭐 하는 데냐면은 건물 유지보수하는 데예요. 건물 유지보수하는 데 그 건물을 유지 보수하니까 창고가 여기서 가끔 가다가 자기네들 문제가 있으면 우리한테 와서 창고에 무슨 문제가 있다 좀 와서 손 좀 봐 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영선과에서 나가요. 나가게 되면 내가 나가요. 왜 내가 나가냐면 첫 영선과에 내가 저기 뭐야 공사 담당하고 또 영선과 모든 일을 하면 나한테 연락이 오면 내가 나가서 상황을 파악하고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걸 얘기를 하면은 과장한테 보고를 하면 과장이 현장 계장한테 작업 지시를 해요. 이렇게 이렇게 갔다 오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저기 뭐야 고쳐라 해서 가는데 내가 왜 학익동 창고를 나왔냐면 학익동 창고 지붕이 누수가 돼 갖고 그 창고 지붕을 대대적으로 고친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 두 달 이상 나가 있었기 때문에

곽은비: 그러면 처음에는 영선과 들어가셨다가

지무환: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일용 생활 할 때는 뭐 이것저것 다 해요. 유리도 나르고 뭐 이런 거 해서 그때는 생산 부서에서 한 또 있었지 그러다가 이제 정식 자리에 앉은 게 73년도 10월 9일 날 영선과라는 데를 가고 이제 본격적으로 거기서 근무를 하게 됐어요.

곽은비: 그럼 학익동 창고 지붕 누수로 가셨던 건 몇 년도 쯤이세요?

지무환: 학익동 창고 지붕 보수를 하는 건 학익동은 본래가 내가 이제 73년도니까 74년-5년부터는 학익동 창고에서 이제 뭐 이런 의뢰 이런 부탁 저런 부탁이 와갖고 74년도 5년도 이때쯤 돼 갖고 공사가 크게 벌어져 갖고 지붕 누수가 된다 해서 그때부터 가서 있는 게 한 두 달 동안은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이랑 똑같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학익동 창고라는 데를 좀 관심도 있고 좀 거기에 대한 걸 알고 있어요.

학익동 창고는 대지가 6천 평 정도 되고 그다음에 학익동 창고가 한동 두동 세동이 있어요. 세동이 있어 갖고 토탈 합하면 한 2600평 정도 돼요.



곽은비: 잠시만요. 2600평 정도 그림 선생님은 학익동 창고에서 근무를 하셨던 거는 아니고 거기 보수로 이것저것 일을 다니신 거예요?

지무환: 그치, 그거 때문에 나간 거지. 공무원에 있으니까 거기서 의뢰가 와서 안 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고정적으로 거기서 한 두세 달을 나가서 같이 직원들이 생활을 했는데 거기는 어떻게 되냐면은 경비가 있고, 창고에 물건이 들어왔으니까 창고 물건을 저기 해야 될 거 아니야 밤에도 봐야 되고 그래서 경비가 있고 그다음에 창고 직원들이 한 8명 있는데 거기 제일 높은 사람이 과장이었어요.

곽은비: 창고가 직원이 한 8명?

지무환: 그때그때 변동은 있었는데 보편적으로 8명 있어요. 창고가 직원이 지게차 운전자 2명이 있고 창고가 있고 그래서 개네들이 창고에서 뭘 하나면은 물건이 인천 만석동 공장에 물건을 만들어 놓으면은 만석동 공장도 창고가 많거든요.

곽은비: 섞어도 밑에가 좀 섞여야 맛있을 것 같아서 [음료 섞어드림]

지무환: 만석동 공장도 이 공장 못지않게 창고가 큰 게 많아요. 근데 그래도 물건이 넘치면은 창고에서 학익동 창고로 이적을 하는 거야. 이적을 해서 제품을 또 쌓아놓으면 고객들이 와서 물건이 뭐 이것저것 필요로 할 때 보면 창고에 있으면 창고에 있는 걸 우선 먼저 내보내는 거야. 내보내고 나서 공장에 있는 또 물건이 있으면 일로 채우고 그러니까 창고에서 물건들 출하 여기서 학익동 창고에서 물건을 출하하고 입고도 하고 출하도 하는 게 창고에서 업무인데 거기에 제일 높은 사람이 창고 과장이 있고 그리고 사무실에 여직원하고 남직원 하나가 있어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저기 뭐야 현장 직원이에요

곽은비: 여직원 하나 남직원 하나 창고 과장 나머지는 현장 직원

지무환: 현장 직원들도 사무실에 와서 업무 볼 때도 있지.

곽은비: 이 사람들 모두 포함해서 8명이었던 거예요?

지무환: 그러니까 창고 과장까지 하면은 9명 정도 되는 거죠.



곽은비: 규모가 엄청 크지는 않았네.

지무환: 9명 10명 이렇게 돼. 여직원도 있다 없다 하니까 9명 10명 이렇게 될 수 있어. 근데 거기 클 필요도 없지. 물건만 내주고 받아주고 하니까 그다음에 그 대신에 경비가 한 7명이니까 경비가 많은 편이야. 그래서 물건 출하하고 물건 받고 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건물은 제법 크거든요. 한 2700평~2800평 거기가 적치 기장이 또 별도로 또 있어요. 적치장은 무슨 적치장이면은 거기 카레트라든가 뭐야 모래. 한국 유리는 모래로 유리를 만들어. 유리 만들 때 보면 78% 정도가 모래고 그다음에 백운석 석회석 잡등분(잡동사니)이 많이 들어가요.

곽은비: 그러면 선생님 처음에 한국 유리는 어떻게 들어가게 되셨던 거예요?

지무환: 한국 유리는 처음에 들어간 건 아까 얘기하다시피 일용으로 들어갔다고 그랬죠.

곽은비: 일용으로 그냥 지원해서 들어가신 거예요?

지무환: 일용을 들어갈 때는 일용 사무실이 별도로 있으니까 거기 가서 암암리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애 이름을 누구한테 좀 써주시오 그러면 그쪽에서 일용 사무실에서 웬만하면 써줘요. 일용으로 들어왔다가 공원 되려면 업무데 자기가 충실히 해야지. 출퇴근도 충실히 하고 다 충실히 하면 그때 현장에 있는 반장들이 봐서 저놈 충실하다 그러면 반장이 추천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아는 별도로 아는 사람이 있으면 별도로 아는 후원자한테 부탁하면 또 그 사람이 추천할 수도 있는데 나는 우리 아버님 친구 지인이 그러니까 옛날에 신의주에 같이 있었던 지인이 있었는데 그 양반이 그때 거기에 과장을 했었던 양반이 있어요. 그 양반이 소개로 들어왔어요. 근데 그 과장이 김예순 계장인데 그 양반은 저희도 잘 알아요.

곽은비: 성함이 뭐라고요? 김예순?

지무환: 그 양반이 바로 저기 뭐야 인천 상륙 작전을 할 때 있죠 해군 부대 켈로부대라고 있어요. 군인 부대원들이 21명 들어오는데 그 사람이 거기에 포함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우리나라 역사상에도 남아 백인엽이가 그때 대령으로 있으면서 여기 인천 상륙작전 할 때 메카 돌아갈 때 우리 큰 부대 하나가 참전했는데 그게 백인엽 부대거든요. 백인엽이 해병대를 갔는데 백인엽이가 총 맞아서 팍 쓰러졌을 때 김예순 계장이 딱 엮고서 갔기 때문에 그 저기 백인엽이라는 사람이 백인엽이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곽은비: 여기 선인재단 만드신 그 장군이시잖아요.

지무환: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야. 성질도 더럽지만 보통 아닌 사람이야. 백인엽이 형이 백선엽이야.

곽은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선인재단이 한 글자씩 탄 거라고

지무환: 그리고 백인엽이가 승질(성질)이 더러운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나면은 차를 이렇게 지프차를 타는데 딱 타고 한 발 밟고 딱 섰을 때 이 한 발이 떨어지지 않아요. 땅에서 안 떨어졌잖아요. 땅에서 떨어짐과 동시에 차가 짹 가야 돼요.

만일 그렇게 안 가면 운전수한테 '에이씨 뭐하는 거야? 기어' 그렇게 사람이 되는데. 근데 그 사람이 그 공장 지을 때 유리를 우리 한국 유리 걸 다 갖다 쓴 거야. 유리는 갖다 써놓고 돈을 안 주는 거야. 돈을 그러니까 그 유리를 갖다 써놓고 돈을 안 주는데 그 사람이 배짱이 무슨 배짱이냐면 나는 이제 퇴직금 받아 갖고 회사 지어가지고 그러니까 학교 지어서 갖고 아이들 가르치는데 이 새끼 유리 같은 거 공짜로 주지 뭘 유리값을 줘 이런 배짱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 유리값을 받으라고 할 때 누구 보내도 거기를 안 가려고 그래 영업사 가면 욕이나 먹고 얻어터지거나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가는 사람이 김예순 계장이 가요. 이 양반이 가면 자기 옛날에 상륙작전 할 때 자기 살리는 은인이라고 생각하고 오면 조금씩 도와줘요. 그래서 김예순 계장이 가끔 가서 그런 얘기를 그건 여담이지.

곽은비: 그러면 좀 전에 적치장 이야기를 하셨는데 적치장도 학익동에 있었던 거예요?

지무환: 적치장이라는 건 뭐냐면은 유리 쌓아놓은 걸 적치장이라고 그래 근데 적치장에는 그냥 창고 안에 다 쌓다가 창고 안에 너무 이제 쌓을 데가 없으면 아직까지 땅 공터로 많으니까 거기다가 A프레임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유리를 또 쌓는 거야. 그게 적치장이야. 적치장이라도 큰 저기가 아니라 A프레임 하나 있고 거기에다 유리 쌓아놓은 거 적치장이라고 적치장에 또 뭐가 있냐면 모래 쌓아놓은 데는 또 따로 있어요. 모래 쌓아놓고 카레트 쌓아놓고 따로 있는데 그것도 적치장이라고 그러지.

곽은비: 저희 할아버지는 그 A프레임을 A다시라고 부르더라고요.

지무환: L프레임이 있고 L프레임은 이렇게 이렇게 생겼고 A프레임은 이렇게 A자처럼 생겼고



곽은비: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가 A 다시 이야기를 해 주셨던 게 나중에 저희 할아버지가 서울 어디서 그 유리 판매하는 데 가셨는데, 그때 연수랑 성남 한창 개발할 때여서 유리를 맨날 보내면 그 A 다시를 반납을 안 해가지고 회사에서 한국 유리에서 A 다시 수거해 와 이래서 갔다가 가서 수거해 오셨다고

지무환: 그럼 고생하는 거지. 그게 굉장히 무거워요. 그런 거 이제 그러니까 지게차도 있어야 돼. 잘 그냥 그 현지에서 지게차 조달해서 써야 되는데 거기 맨 처음에 가자마자 여기 현지 지게차가 어딴는지 알 게 뭐야. 그걸 또 쓰면은 그 돈도 줘야 될 거 아니야. 돈 줘야 될 거면 영수증도 다 떼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런 데 가면 밥도 먹어야 되잖아. 그럼 밥도 자기가 사서 먹어야 되고 그런 걸 다 하려니까 그때 아마 그런 데 가서 있으면 고생도 많이 했을 거예요.

곽은비: 그러면 선생님 72년도 12월에 처음 일용직하고 73년도 봄에 입사하셔가지고 봄부터 언제까지 다니신 거예요?

지무환: 96년도 8월 15일 날 그때 이제 관두고

그다음에 97년도 12월달에 인천공장이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관둘 때 인천공장 문 닫을 테니까 빨리 관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그때 명예퇴직이라고 그래갖고 퇴직금을 평상시에 받는 것보다 1억을 조금 더 받고 나왔어요. 그때만 해도 한국 유리가 돈이 좀 있었을 때. 그때 1억은 지금 1억 하고 좀 다르지 그때 1억 받고 인천 시내 나왔을 때 인천 시내에 내가 노동청 가서 그때 관두면 관뒀다고 신고를 하거든요.

그래야지 휴직수당이 나왔기 때문에 가서 노동청 가서 휴직 수당하고 관뒀다고 저기했는데 그때 당시가 IMF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관뒀어요. 다른 회사들도 남동공단에서 다니던 사람들이 관둬 갖고 거기서 노동청에서 물어본다고 퇴직금을 받았냐 뭐 어찌냐 이런 걸 내가 왜 그러냐면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때 보니까 보통 보니까 23년 24년 다니는 아이들인데 그때 보니까 24년 다녔는데 2400만 원 받더라고 보통 회사가 그리고 조금 많이 받는 회사가 한 4천만 원 받는 거야. 그거 진짜 많이 받는 회사는 8천만 원 받는 회사는 드물어 보기가 우리가 1억 8천 원을 받았어.

내가 1억 8천 5백만 원 받는데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데 1억 8500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내가 미안한 거야. 그래서 8500 받았으니까 사람들이 다 나한테 물리는 거야.

그럼 어느 회사 다니셨습니까? 어디서 이렇게 퇴직금을 많이 줘니까?

1억 8500억 받았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석동에 한국유리. 한국 유리는 어디



있냐고 만석동에 있다니까 그 회사 어디야 아이들이 막 물어보는 그때 만석동 있는 한국유리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1957년 9월달에 이승만 박사에 있으면서 그때 항공기가 생겼어요. 그때가 내가 만석동에 살 거야.

그래 갖고 이승만 박사 온다고 행길까지 나가서 이 박사 간다고 그래서 차를 보니까 차가 세단 차가 짝 가고. 앞에는 저 해병대 헌병이 딱 타고 선글라스를 짝 쓰고 그 앞 차가 가고 이 박사 차가 딱 가는데 프란체스카 여사가 문 열고 짝 손을 들어. 그때 내가 몇 살이나 하면 보통 나이로 10살 때요. 동일방직 아직까지 있는데 동일방직 앞길로 갔어요. 그래서 한국 유리는 그 뒤에 있지. 그때가 57년도 9월달에 한국유리가 화협해갖고 한국 유리가 생긴 건데 한국 유리 생길 때 한국 유리 최 회장이 그다음에 김 이 사람이 김성만인가 그리고 이봉수 이렇게 셋이서 동업을 했어요. 최 회장은 5천만 원 이사람도 5천만 원 5천만 원 그때 5천만 원은 무지 큰돈이에요. 57년도 5천만 원.

그때 한국 대한민국의 3대 기간 산업이라고 해서 한국유리 그리고 비료 공장 그다음에 석탄공사 석탄.이렇게 3개가 한국 3대. 그때 이병철이가 우리 최 회장한테 와서 돈 꾸러 다닌 거예요. 이 세 사람이서 같이 일을 했는데 그때 김 이 이런 사람들이 모든 운영은 최 회장한테 맡기고 돈만 투자한 거야.

이 사람들은.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가고 내가 들어갈 때쯤 되니까 73년도 되니까 이 사람들 아들들도 컸을 거 아니에요. 아들들이 컸으니까 우리 아들도 그 회사에서 좀 일하고 싶다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 오자마자 이사 김봉수 아들은 김 이사 시키고 이 사람 아들도 있었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에 애가 이제 장난질을 치지. 애가 애가 똑똑해 갖고 회사를 회사를 운영을 해서 크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놈은 그게 아니야.

이놈은 자기를 위주로 해서 회사를 운영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조금 쪼들어져. 그래서 인천공장이 문 닫은 거예요. 인천공장 문 닫았는데 애가 그 최 회장이 이때쯤 돼서 돌아가서 우리가 관둘 때쯤 돌아가서 이 사람은 아들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사람 아들도 셋 있어 셋 있는데 이 사람 아들이 사람들한테 지는 거야. 이놈이 머리가 팍팍 돌아가니까 사람들이 그때 손에 놀아나면서 인천공장이 문 닫은 거야.

목적은 제일 큰 원인이 애에 의해서 인천공장이 문 닫은 거고 그래서 인천공장에 문 닫다 보니까 살아나는 데가 군산공장은 아직까지 그때 있었으니까 군산공장은 그냥 살고 그다음에 섬유리 공장이라고 있는데 그것도 그냥 살고 1년 그러니까 옛날에 인천 공장이 중심이 돼 갖고 인천공장에서 모든 게 이루어졌는데 인천공장이 없어지니까 우리 만석동 한국 인천에 사는 사람들은 인천공장이 없어지니까 거기서 다 끝난 거지.

곽은비: 저희 할아버지가 판유리 다녔고 아빠가 그래서 안전 유리 가좌동



지무환: 내 동생도 안전 유리다녔어. 내 동생 그러니까 그게 연줄이 있으면 그렇게 들어가기 쉬워요. 사실 한국 유리가 돈 많이 주는 회사예요. 관두고 나서 생각해 주면 한국 유리가 돈을 대우를 많이 해. 근데 대우를 많이 해준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지. 왜냐하면 한국 유리가 고생하는 회사예요. 왜 고생하나면은 한국 유리를 딱 들어가면 보통 여름에 들어가면 보통 이런 데는 32도 31도 한국 유리 들어가면 43도예요. 공장 일하는 데 딱 가면서 그러니까 거기 얼마나 더워요. 그런 데서 일을 하고 8시간을 일하고 나면 아이들이 기가 팍 죽는다고 젊으니까 그 기세를 이기고 나가는 거지. 사실 근처에는 더 저기하지만 한국 유리에 들어가서 일하면 42-3도에서 일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봉급이 좀 센 거예요. 그리고 삼교대를 하기 때문에 삼교대는 건 아침 근무 있고 오후 근무 있고 야간 그러니까 야간 수당은 야간에는 50%를 더 주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열흘 가까이 야간 수당 그러니까 임금이 비쌀 수밖에 없어. 그리고 한국 유리 또 임금이 비쌀 수 없는 게 설날 추석 뭐 이런 거 있죠. 그거 다 나가야 돼요. 한국 유리는 추석이라고 해서 안 나가면 안 돼. 365일 하루도 빠지지 않게

곽은비: 로가 그게 꺼지면 안 된다고 하던데

지무환: 꺼지면 안 돼. 왜 그러냐면 '로'가 불이 떴다가 만일 불을 안 뚫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게 이제 열에 의해서 이렇게 흘러내려가야 되는데 열이 없으니까 딱 붙는다고 그러면 그거 파내면 보통 일이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이제 죽으나 사나 365일 나가야 돼. 근데 할아버님은 생산 부서이기 때문에 유리가 이렇게 나오면은 그 원판실이나 밑에 가면 저기 절단실인데 거기서 근무하신 양반이

곽은비: 저희 할아버지랑 같이 입사하신 분 중에 한 분은 그 유리에 크게 베어가지고 다리 다치셔서 경비과로 가셨다 하더라고요.

지무환: 맞아. 뭐 그런 사람들 많아요. 나도 뭐 다친 적 있으니까 그때 거기에 가면은 소소하게 다치는 거는 그냥 그렇게 다쳤나 보다 해야지 거기 가서 말짱하게 다니기는 좀 힘들어요.

6. 학익동 유리창고 근무 체계 및 근무 환경 (00:37:32~00:46:26)

곽은비: 혹시 유리 창고는 공장이랑 근무 체계가 좀 달랐어요? 3교대 4교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지무환: 유리창고는 낮에 근무만 해요.

곽은비: 유리창고 낮에만.

지무환: 아침 8시 반에 들어와서 17시 30분에 나간 거야. 근데 경비들은 24시간 근무해요.

곽은비: 경비는 24시간. 그럼 여기는 사실 유리 창고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공장 노동자분들에 비해 돈을 막 그렇게 잘 벌고 이런 건 확실히 아니었네요. 그냥 평범하게?

지무환: 공장에 있는 사람들하고 엇비슷하다고 봐야지. 공장 다니면 잔업을 많이 해야 돼요. 잔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창고는 사실 잔업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기껏 해도 2시간 잔업 할까. 밤에는 할 게 없어. 그 대신에 직원들이 식대가 별도로 나오니까 식대가 별도로 나오고 교통비가 별도로 나와요.

곽은비: 유리 창고는요.

지무환: 식대가 별도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아껴 써야지 그러면 그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지

곽은비: 그러면 유리 창고의 업무는 주로 그냥 진짜

지무환: 물건 입고

곽은비: 물건 입고

지무환: 물건 출고 입출고를 그냥 이제

곽은비: 그리고 그 창고 지키고 혹시 학익동 유리 창고는 몇 년도쯤 만들어졌는지도 아세요? 대략

지무환: 그 학익동 유리 창고 몇 년에 만들어진 것까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내가 내가 갔을



때 73년도 가니까 그 창고는 있더라고

곽은비: 그때는 벌써 있었어요?

지무환: 그리고 내가 관두고 나서 그때는 뭐 내가 관두고 나서 얼마 있다가 그럼 이젠 창고가 필요 없는 거지 뭐 창고가 필요가 없으니까 이세훈이가 팔아먹은 거지. 뭐 우리는 이세훈이를 아주 좋지 않게 생각하고 이세훈이니까 팔아먹은 거야. 그놈은 땅 건물 팔아먹고 한국 유리 만석동 공장도 팔아 쳐 먹으려고 그러는 놈인데 뭐

곽은비: 그러면 유리 창고 학익동 유리 창고 근무하시는 분들은 식당이 따로 없었죠?

지무환: 식당 없죠. 식당이 없으니까 식대가 나온 거예요.

곽은비: 식당이 없어서 식대가 나오는데 그럼 대부분 그 뭐야 도시락을 싸오셨어요? 거기 주변에 먹을 데가 없어

지무환: 먹을 데가 있어요. 거기 식당이 세 군데가 있었어요. 나도 거기에서 먹었어요.

곽은비: 잠시만요. 바로 앞에 어디 쪽에 식당이 있어요?

지무환: 옛날에 여기 차가 거기 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식당 우리 창고 바로 앞에 차가 섰어요. 수인선이 섰는데 거기가 역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차만 쓰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가끔 내리고 그래서 거기에 식당이 2개 3개가 있었어요.

곽은비: 옛날에 아마도 용현역이었던 곳인 것 같은데

지무환: 역을 난 보지 못했어요. 근데 거기 식당이 있으니까 거기서 식당에서 사먹었죠.

곽은비: 혹시 이 식당들은 메뉴가 어떻게 됐었어요?

지무환: 메뉴는 우리 보통 얘기하는 건 김치찌개 백반 거기는 근데 지금 식당에서 하는 거죠. 일반 식당에서 그런 거 나온 거예요.



곽은비: 보통 두세 곳 다 그냥 백반집?

지무환: 김치찌개 백반. 이거 해달라고 그러면 별도로 해주긴 했죠. 그러니까 직원들이 저녁 때쯤 퇴근할 때는 가끔 가서 회식도 하고 그러니까, 고생하면은 회식 하라고 조금 회사에서 돈 올 때가 있어요.

그럼 가서 술 한잔 먹고 퇴근하고

곽은비: 여기는 셔들은 그러면 없었겠네요. 인원이 워낙

지무환: 그렇지. 거기는 그러니까 교통비가 별도로 나오고 교통비가 나오니까 개네들이 교통비를 아끼느냐고 그 근처에서 사는 거지. 그 근처에 사람들 교통비는 나오고 그러니까 걸어 다니면 되는 거고 먼 놈들은 두 번 타고 올 거 한 번 타고 그래서 다니는 거야. 그런 게 자기네들한테 조금 용돈이라도 쓸 수 있게 되는 건데 그것도 사람이 알뜰한 사람이라 그러지 알뜰하지 않은 놈들은 뭐

곽은비: 혹시 요 옆에다가 빨간색으로 유리 창고 세 동이 있었다는데 어떤 식으로 있었는지 그려주실 수 있나요?

그냥 옆에다가 이렇게 찍 그어가지고 대략 그려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무환: 이게 a동, b동 이게 c동 여기 땅이 이렇게 요상하게 생겨갖고 이렇게 작게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도로고

곽은비: 사무실은?

지무환: 사무실은 이렇게 똑 떨어져서 여기 출입문이 이렇게 있으면 출입문이 여기 구석에 있거든 있으면 사무실은 여기. 여기 경비실이 있고 경비실에 붙어서 사무실 있고 창고 사무실 옆에 화장실 같은 거 겸 목욕탕 겸 이렇게 있었고

곽은비: 잠시만요. 제가 나중에 알아보려고, 저도 인터뷰하면서 알아보려고 출입구 있고, 바로 앞에 경비실

지무환: 출입구 바로 앞에 경비실 있어요.



곽은비: 사무실 화장실 있고

지무환: 화장실 목욕탕도 있고 그

곽은비: 목욕탕도 있구나

지무환: 아니 그냥 있어야지 목욕 갔다가 직원들 나갈 때는 닫고 나가야지. 근데 그 화장실
그거는 사실 목욕탕이라고 봐야지.

곽은비: a, b, c동은 진짜 창고?

지무환: a동은 크고 b동이 조금 중간에서 조금 더 크고 c동은 좀 땅이 적으니까 조금 작고

곽은비: 그래도 이렇게 대지가 6천 그러니까 창고 건물에 비해 대지가 넓으니까, 그 차들이
들어와서 A다시 신고 이렇게 약간 왔다 갔다 하기는 괜찮았겠네요.

지무환: 여기는 넓죠. 거기 공터가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이게 2700-2800평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는 다 공터지.

곽은비: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이거 유리 창고 근무하시는 분들은 저희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자식들 대학 등록금도 나오고 한국에서 똑같이 유리 창고도 마찬가지로요?

지무환: 애네들도 우리 직원이에요.

곽은비: 등록금이나 그 뭐야 저희 할아버지가 그 얘기도 하시던데 하계 휴양소. 송도유원지.

지무환: 애네들도 다. 한국 유리가 좋다는 게 그런 게 좋은 거예요.

다른 회사랑 다른 것만 얘기해 줄게요. 내가 맨 처음에 들어가니까 중학교까지 학자금이
나왔어요. 그때 73년도에 들어가니까 중학교까지 학자금 보조. 조금 있다가 중 고등학교
학자금 보조가 나왔어요. 그러다가 조금 더 있으니까 대학교 학자금까지 나왔어요. 대학교
학자금 나올 때는 아마 80년도 조금 넘었을 거야. 그러니까 대학교 학자금까지 나올 때 의대
나온 아이들 있죠. 의대 나온 아이들은 의대까지 다 지원해줬어요. 그러니까 의대 나온
아이들이 몇 놈이 있었어요.



그 의대 나온 아이들은 학교에서 진짜 공부도 잘했겠지만 회사에서도 개 지원률이 굉장하.
의대는 다른 데보다 비싸니까

곽은비: 유리 창고에 근무하셨던 분들은 사실 막 그렇게 위험한 일은 없었겠네요. 유리 창고는?

지무환: 그러니까 특별히 위험한 건 없어도 유리라는 게 본래 칼이랑 똑같아요. 유리가 깨지면은 칼보다 더 날카로운 게 유리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위험은 한국 유리는 어디나 존재하니까 거기도 조금은 위험한 장소죠. 그러니까 모든 걸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해야지 너무 안일하게 하면은 사고 날 가능성, 유리 하나 깨지면서 사람 몸에 스치면 칼이 와서 닿는 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요새 건설 현장에서 사람 죽고 뭐 이러잖아요. 그렇게까지는 위험하지 않아도 유리 공장에 딱 들어와서 일한다 그러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곽은비: 그러면 그 유리 창고에서 뭔가 그런 큰 사고나 이런 거는 없었어요? 딱히?

지무환: 그렇게 큰 사고 난 건 없는데 가끔 지게차가 있고 이거 상차 하차시키다 보면은 뭐 소소한 사고는 났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뭐 거기서 사람이 죽었다든가 거기서 뭐 저기 했다든가 그런 거는 뭐 얘기 들은 게 없어요.

7. 학익동 유리창고 주변 공장 지대 풍경 이야기 (00:46:27~00:52:47)

곽은비: 그때 주변의 풍경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때는 수인선이 다녔죠?

95년도까지 다녔으니까 수인선 다니고 유리 창고 있고 수인선 옆으로 음식점들 조금 있었고

지무환: 그렇지 음식점이 요 길 이렇게 세 집이 있었던 것 같아.

곽은비: 음식점

지무환: 식당 식당이

곽은비: 이 주변이 다 그때는 공장이었잖아요. 한국 농약이 있고

지무환: 한국 농약 있지



곽은비: 한국 농약 있고 그때 다니실 때면 한일 방직이랑 흥한 방직 동일 방직 이런 거

지무환: 동일 방직은 만석동이고, 흥한방직은 우리 어렸을 때 있었는데 우리가 여기 있을 때는 흥한방직은 벌써 망한 지가 오래됐지. 왜 그러냐하면 흥한 방직은 박흥식이라는 사람이. 별로 좋은 인상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하면은 일본놈이랑 찐다 해갖고 그 산업을 발전시키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해방되고 나서 돈이 있으니까 좋겠지만. 흥한 방직이 먹고 사느라고 다니는 사람은 있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저기 한 거.

곽은비: 요 건너에 옛날 유공 그때도 유공이었나요? 아니 그때 원래 미군 부대였다가 유공으로 바뀌었다라고 들었는데.

지무환: 우리가 있을 때는 유공이었어요. 유공인데 이거 기름 탱크가 거기 3개에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잔디밭이 있는데 거기가 잔디밭이 잘 돼 있어. 축구 선수들이 와서 공 차고 그랬던데요.

곽은비: 축구도 보신 적 있으세요?

지무환: 그럼요. 그때 김정남이 뭐 이런 아이들이 와서 지금 여기 축구 하고. 개네들이 유공 소속이었어요.

곽은비: 그러면 그 축구 경기할 때는 티켓을 따로 주거나 했어요?

지무환: 축구 여기서 연습하러 온 거지. 여기 장소가 넓고 축구 차기 좋고 저기 풀밭이 좋고 그러니까 연습하는 거야. 경기를 뒀 건 아니고, 그때 당시에 김정남이 김호 같은 애들이 김정남이 김호가 지금 다 죽었지만 이회택이 같은 애들이 그때 쫓병이었어요. 그런 애들이 와서 여기서 공 차는데 왜 오냐면 옛날에 유공 저유지 옛날에 유공이 축구 구단이 있어가지고

곽은비: 그렇더라고요. 유공 코끼리 뭐 이렇게

지무환: 그래서 유공에 있을 때 김정남이 김호 유명한 사람들이예요. 이회택이는 아직까지 살아 있지. 여기가 그래서 축구장이 있어. 축구장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닌데 축구 칠 만큼 넓은 공지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들 자기네들끼리 차고 그러는 거 차고 가고 그러는 걸 옆에서



봤지.

곽은비: 그럼 선생님이 다시 학익동 유리 창고 근무했을 때는 원래 여기 협궤열차 옆으로 바다가 들어왔다 했잖아요. 그 바다 다 메꿔진 후죠? 선생님 들어오실 때는?

지무환: 내가 여기 들어왔을 때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올 때는 메꿔졌지. 내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 거기가 바닷물이 들어오고 그랬는데 국민학교 들어오고, 국민학교 끝나고 나서는 거기로 갈 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중학교는 송도 중학교니까 시내에 있었고 그다음에 인천공고 다닐 때는 일자로 다니니까 거기 갈 일이 없고.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내가 가니까 창고 갔을 때는 다 메꿔져갔고 거기가 뭐가 있었냐면 대우전자가 있었어. 대우전자 일렉트로닉스. 대우전자가 종업원이 그때 6천 명 있었어요. 내가 갔을 때 그때 대우전자가 6천 명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대우전자에 내 친구 놈이 구매 계장을 해 갖고 내가 거기 가봤거든요. 가 보니까 종업원이 얼마 됐냐 그러니까 6천 명 넘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 너 요새 뭐 하나 그러니까 그냥 구매계장이라고. 구매계장이 사실 공장에서는 아주 노른자거든요. 그놈이 거기서 하는 걸 내가 그걸 봤지. 그리고 대우전자가 언젠가 그 검단 쪽으로 이사 갔다 그러더라고

곽은비: 그러면 여기가 진짜 동양화학도 있고 학익동 유리 창고는 근무 인원이 적었지만 유공 있고 여기 대우 있고 막 이래서

지무환: 대우도 있고 그다음에 동양화학도 있고

곽은비: 출퇴근 시간이나 이럴 때 사람이 엄청 많지 않았어요?

지무환: 그때 사람이 많은 데는 저기 동양화학. 동양화학은 사람이 원체 많으니까. 대우전자가 생기고 났을 때는 대우전자도 6천 명인가 사람이 많고. 한국 유리는 뭐 거기에 비하면 소수죠. 한 30명 정도 내외 되니까 뭐 별거 아니고. 그 다음에 그 농약 회사가 한 120명 내지 200명인데 한국 농약이 그 알짜 회사예요. 한국 농약이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농업 국가였잖아요. 그때 60년대 이전만 해도 그러니까 그때 농약이 아주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컸거든요. 그래서 공장이 한 100 한 200명까지는 안 되고 100명 좀 넘었는데 거기가 아시아에서 거기가 대우도 팬찮았어요. 거기도 언제 없어졌는지 슬그머니 없어졌어

곽은비: 맞아요. 한농도 없어지고 막 이거저거



지무환: 한농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은 거기 내 친구 놈이 공장장까지 한 놈이 있는데, 그놈이 인천 제고 나와서 고대 화학과 나와갔고 나중에 거기서 공장장까지 했더라고. 학익 국민학교 나왔어요. 그래서 인중(인천중) 나오고 제고(제물포고) 나오고 고대 나와서 농약공장 나중에는 공장장까지 했더라고요. 이사 했더라. 이사 공장장. 그러다가 회사가 망하니까 그 농약에서도 이제 어떻게 나가라서 저기 했어요 그 나라에서 아마 민간인이 넘겨놓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애가 거기 관두고 나서 저기 김포에 있는 씨름하는 저기 학교가 뭐더라 저기 이만기가 씨름하고 연구원 해갔고 거기서 19년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연구원도 대우가 어떠냐 그러니까 거의 교수 수준하고 준교수 수준은 되는 거더라고

8. 학익동 유리창고 직원 선출, 철도 인입선 이야기 (00:52:48~00:59:16)

곽은비: 그러면 학익동 유리 공장 유리 창고에 근무하셨던 분들도 직원을 뽑을 때는 본사인 인천 공장에서 그냥 다 뽑고 똑같이 뽑고 배치를 거기로

지무환: 그러니까 우리 한국 유리가 내가 들어갈 때 공장장이 상무예요. 상무 공장장인데 이 사람 끝발이, 그때 당시에는 우리들은 공장에 있는 사람은 상무 공장장이 모든 걸 다 하니깐 그 사람이 왕이지. 인천공장에서 사장 와도 그 사람만큼 직원들이 찢찢매지 않아. 공장장한테 찢찢매는데 그거 뭐 부장이니 과장이니 뭐 이런 사람들이 공장장한테는 그냥 찢찢매지만 사장은 와서 좋은 얘기만 하니깐. 저기 사장이 참 인덕이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내가 연수원에 공사를 해갔고 연수원에 갔는데 지하실에 갔어요. 지하실에 가니까 물이 나가지고 딱 자기 신발이 젖는 거야. 그러면 그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 물이 없어야 되는데 물이 나가지고. 근데 사장은 거기 다 신발이 젖었어. 그래도 말 안해.

근데 그때 당시에 부사장, 전무라는 사람이 왔는데 물이 나니까 '여기 누가 있었어? 이리 와! 이게 뭐야!' 군바리 출신이니깐. 근데 사장은 올라가서 '고생했습니다. 그거 젖느라고 고생했어요.' 그 사람한테는 그 사람이 조계장이 된 사람인데 그렇게 사장이 인덕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공장장은 쪼는 저기니까. 인천공장에 변일균이라면 우리들은 다 어려워해요. 그런데 뽑을 때 다 변일균이가 사람 다 뽑는 거예요.

곽은비: 그러면 그 창고는 부서가 창고 과라고 따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무환: 창고과의 창고1과예요.



곽은비: 아까 말씀하신 거 아까 선생님 근무하셨던 공무부 영선과라고 했는데 그 부서는 뭐예요? 그러면

지무환: 우리는 공무부지. 공장에 가면 생산부가 있고 생산부가 사람이 제일 많지. 그 다음에 서무부. 그 다음에 제품 관리부. 생산부도 생산 1부 생산 2부가 있어요. 생산 1부는 판유리이고, 생산 2부는 관유리고

곽은비: 관 유리가 이런 관?

지무환: 관 만든 거 그걸로 형광등 만들 때 쓰는 거예요.

곽은비: 선생님이 하신 공무부가

지무환: 나는 공무부죠.

곽은비: 그러면 창고과는

지무환: 창고과 제품 관리부, 제품 관리부의 창고 과야.

곽은비: 제품 관리부의 창고과. 창고과는 그럼 안에 이렇게 여러 개였던 거예요?

지무환: 창고과도 창고 1과 있고 창고 2과 있어 가지고, 저기 학익동 창고에 나와 있는 과장이 있고 거기 안에도 창고 과장이 한 둘 있어요.

곽은비: 학익동 창고가 1과?

지무환: 창고 1과라고 봐야지 사실 창고 학익동 창고가 좀 끝발이 약하지 사람이 없어.

곽은비: 그럼 창고가 학익동이랑 만석동 말고 또 있었어요? 인천에?

지무환: 창고가 인천에는 내가 알기로는 없어요. 인천에

곽은비: 그러면 그거랑 하나 또 궁금했던 게 저희 할아버지 말씀으로는 동양화학에서



협궐열차 철도를 좀 사용해서 좀 늘려서 동양화궐선이라고 해서 동양화궐으로 철도 인입선을 이렇게 나르는 걸 했다는데 그거 한국 유리도 그 철도를 좀 이용을 했었는지가 궁금해요.

지무환: 한국 유리도 차가 그 일부 차가 저기 적재 적치장까지 들어왔어요.

곽은비: 그러면 그 열차가 뭐지 여기에 협궐열차면

지무환: 이게 열차면

곽은비: 빨간색으로 표시해 주세요.

지무환: 남부역이라는 게 있어요. 남부역에서 연결해 갖고 들어와서 우리 담을 넘어서 적치장 쪽으로 들어가서 저 뒤쪽까지 갔는지 거기서 끝나는지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또 동양화궐도 들어가는 게 연결이 됐었나 봐요.

곽은비: 그럼 동양화궐 말고 여기가 이렇게도 갔다는 거죠?

지무환: 그렇죠. 남부역에서 이렇게 철궐이 있어요. 본래 궐존이 있어 갖고 이 협궐열차하고는 철궐이 달라요.

곽은비: 잠시만요. 협궐랑 철도가 다르구나.

지무환: 다른 거예요. 차 넓이가 달라.

곽은비: 그러면 남부역에서 동양화궐으로 들어오던 게 유공 안에도 철도가 있던데 유공, 동양화궐, 한국유리 이렇게. 한국유리 남부역 철도선은 만석동에서부터 이렇게 오는 거예요?

지무환: 인천역에서 오는 거고, 거기하고는 또 다르지.

곽은비: 그러면 학익동 유리 창고에서는 어디서 온 거예요? 보통?

지무환: 별로 많이 이용하지는 않아.



곽은비: 철도를 많이 이용하지 않았어서.

지무환: 가끔 들어왔다 나갔다 하더라고 그러면 뒤에 뛰어가서 문 열어주고 또 나가면 문 닫고

곽은비: 그러면 창고에 유리를 옮길 때는 보통 자동차로 왔던 거예요?

지무환: 거의 다 자동차로. 전에는 열차로도 운반할 수 있었는데 근처에 가서는 그 열차는 거의 안 왔다고 봐야지.

9. 학익동 일대 풍경 한국유리 근무 이야기 (00:59:17~01:17:10)

곽은비: 요 정도 여쭙보면 될 것 같고, 제가 인터뷰하면서 추가적으로 궁금했던 게 아까 여기 안테나 말씀하셨잖아요. 안테나 있을 때 동양화학 안에 원래 극동 방송 방송국이랑 외국인 선교사들 사택 있었다던데 그거 보신 기억 같은 건 없으세요?

지무환: 보긴 했죠. 사택 건물이 빨간 건물로 지어 갖고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아주 좋은 건물이에요. 그때 빨간 벽돌로. 그때는 만석동, 인천시내 빨간 벽돌로 집 지은 건물이 거의 없었어요. 그 미군 놈들이 사니까 빨간 벽돌로 집을 지어 갖고 그 안에는 못 보고 지나다니면서 옆으로만 보는 건데 그런 건물들이 두세 개가 있고, 사택도 있고 그렇지.

곽은비: 그리고 사동 거주하셨다 했잖아요.

혹시 사동에 마루보시 사택이라고 일본인 집, 일본식 다다미방 있는 집들이 몇 개 있었다던데 그 집을 마루보시라고 불렀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지무환: 기억나는 게 아니라, 마루보시에 산 내 친구놈이 거기서 사는 거. 그 집이 일제 집으로 돼 있는데 그때만 해도 인천의 집들이 다 좀 후졌다고. 그 집이 좀 괜찮았어요. 마루가 다다미로 깔려 있더라고. 그러니까 일본식 집이야. 근데 그렇게 부르지도 않았고, 몇 채가 있었어요.

곽은비: 그게 인천 지금으로 인천여상인가?



지무환: 그치, 인천여상 바로 밑에.

곽은비: 인천 여상 바로 밑에, 그러면 이게 왜 마루보시이라고 불렀는지는 모르시죠?

지무환: 그건 모르죠. 그건 일본 말이니까.

곽은비: 그리고 선생님이 그러면 송의동에서 학익동 창고로 오실 때는 어떻게 출퇴근을 하셨었어요?

지무환: 내가 송의동에서 학익동 창고를 올 필요가 없지. 나는 만석공장에 있는데, 어떻게 출근을 해. 근데 만석공장에 출근했다가 거기서 저기 다시 학익동을 나온 거야. 출장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소속이 만석 공장이니까 일단 만석동으로 출근을 해요. 출근해서 외출증을 받아 갖고 나온 거야. 곧바로 나오는 거야.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20명이 훨씬 넘으니까 개네들 인사 사고도 있고 또 오야지 있으니까 오야지도 좀 다독겨야 되고, 이런 역할을 했지. 내가 그 송의동으로 학익동 창고로 직접 출근 할 일은 없어요.

곽은비: 그러면 만석동 공장에서 학익동으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셨었어요?

지무환: 그러면 버스 타고 가야지.

곽은비: 그냥 시내버스? 혹시 몇 번 버스였는지 기억나세요?

지무환: 6번, 그때 당시에 6번 버스였을 거예요.

곽은비: 그럼 6번 버스가 어디서 내렸어요?

지무환: 학익동 창고 바로 앞에서.

곽은비: 바로 앞에 홈플러스 있는 데?

지무환: 가까웠어. 그러니까 거기 하여튼 교통은 거기 좋았어요.

곽은비: 이 정도 한 번 여쭙보면 될 것 같고 한 번만 확인해 볼게요. 선생님 메모를 되게



열심히 해오셨는데, 메모에는 어떤 게 적혀 있어요? 글씨도 엄청 또박또박 예쁘게 잘 써주시고

지무환: 한국 유리가 판유리 공장이 있고, 관유리 공장이 있거든요.

근데 판유리 공장도 '로'가 4개가 있어요. 공장 '로'라는 거 공장 하나 둘 셋 넷 1공장은 풀콜(Fourcault)이라고 부르고. 2공장도 풀콜인데 1, 2 공장은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떨어져서 색유리 공장이라고 또 있고 그것도 유리 공장인데 색이 유리에 색이 있어서 약간 뒤에만 검은색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무늬 유리라고 그래서 유리에 무늬가 있는 거 있어요. 완자 무늬 무슨 무늬 이렇게 해서 무늬도 한 네다섯 가지인데 그런 거 있고, 나중에 펜바논 유리라고 그래서 이 펜바논 유리가 만석 공장에서는 제일 좋은 질이 좋은 유리예요. 그 다음에 관 유리 공장은 SG로도 있고 BS로 있고 LG로 있고 SL로 있는데 SG로는 그냥 보통 형광등 유리이고 BS로는 병원 같은 데 가면 램프 같은 거 쓰는 거잖아.

그게 원료거든, 의학. 원료도 좀 틀리고 그건 특이하지.

그 다음에 SL로 LG로 이런 거는 컵유리. 내가 내 나름대로 한번 노 종류도 이렇게 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인원이 내가 들어갔을 때 1500명 내지 인천공장에 5천 명 3천 명까지 3천 한 500명까지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건 5천 명 가까이 돼요. 왜 그러냐면 종업원이 3천 명이면 그 밑에 나가서 일하는 일용도 있고, 그다음에 저기 뭐야 하청 기업도 있고 그래서 많을 때는 한 거의 5천 명이 됐다고 봐도 가능해. 근데 3500명까지 적어놓고 우리 회사의 제일 높은 사람이 이 만석 공장에는 공장장이 상무 이라고 그다음에 부장들이 한 대여섯 명 되고 부장들도 그때그때 조금 바뀔 수도 있고, 그다음에 차장도 그거 비슷하고 과장은 많고 계장 그다음에 반장 현장에는 반장이, 사실 반장이 뭐 별거 아닌데 사실 야간에는 반장이 다 해요.

야간에는 계장 이상은 다 퇴근하니까. 근데 야간에 생산 라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

그래서 반장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 잔업 이런 거 다 반장이 지휘를 해. 우리는 공무부서가 돼서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는데 반장 역할이 그렇게 커요.

곽은비: 선생님도 3교대 4교대 이렇게 하셨었어요?

지무환: 나는 맨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3교대 했죠. 3교대 잠깐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공무부로 넘어와서는 3교대 근무를 안 했지.

곽은비: 그럼 공무부는 진짜 9시 출근 6시 퇴근 이렇게?



지무환: 그렇죠. 공무부는 저기 아침에 8시 반에 출근하고 17시 30분에 퇴근하려는 건데, 공무부가 잔업을 많이 해요. 잔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10시까지 근무하는 일들이 많고, 그다음에 공무부는 저기 뭐야 365일 오니까 추석, 설날 뭐 이럴 때 다 나오니까 그런 게 또 휴급 수당이 붙고 그러니까 돈이 좀 돼요. 공무부가 잔업을 많이 하다 보니깐, 그리고 우리 회사가 모래로 만드는데, 배합실이라는 데 가 갖고 모래를 잘게 잘라주고 말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모래가 들어가면, 모래만 갖고는 안 되거든요. 백운석 석회석도 다 모래랑 비슷하게 잘라서 그게 다 섞이면서, 그놈들이 로에 들어가 갖고 녹아야 되는데 그렇게 금방 녹지 않아요. 잘 안 녹아. 그래서 녹는 데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게 카렛트라는 게 또 들어가요. 카렛트는 뭐냐 하면 카렛트는 유리에요.

곽은비: 카렛트

지무환: 카렛트가 뭘 하나면 카렛트가 있음으로써 그 모래 [백호수\(01:08:55\)](#)나 석회 이런 게 들어간 게 촉매제 역할을 해 녹는 데 도움을 많이 줘. 그러니깐 유리가 만들어지는 거야.

곽은비: 맨날 할아버지한테만 들었는데 이렇게 또 다른 분한테 들으니까 되게 색다르네요. 선생님. 근데 이렇게 다 기억하시는 게 저는 너무 신기해요. 무슨 부서가 있었나 막 이런 걸 다 기억하시는 게.

지무환: 인천 한국유리 하면 인천공장이예요. 인천공장이 있을 때 본사가 있었어요. 본사가 여의도에 11층짜리 12층 옥상까지 해서 12층짜리 건물이 있고, 그다음에 부산 공장을 우리가 인수했어요.

인천공장 부산공장이 있고, 그다음에 구미에 CRT 공장이 있고, 그다음에 군산 공장이 생겼어요. 지금까지 군산공장은 아마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한국유리 인천공장이 망하는 게 현대에서 KCC라는 공장이 있어 갖고 거기에 자꾸만 찌고 찌고 하다가 우리 회사가 문 닫는 데 촉매제 역할을 하고 거기다가 이세훈이라는 놈이 자기 개인 목적을 위해서 그 회사를 자꾸만 이렇게 감시해서 자기 이득을 저기 하면서 한국 유리는 상고방한테 완전히 넘어갔어요. 지금 한국에 있는 한국 유리는 대한민국 게 아니라 상고방 거예요. 그리고 상고방에서 또 우리가 갖고 있던 여러 가지 회사들이 대원 안전유리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다 이세훈이가 팔아서 조작해서 다 저기했는데 그 이세훈이가 무슨 짓거리를 하나면 개가 지금 현재 내가 알기로는 싱가포르에 지하금고 있죠. 거기서 2인자 3인자 1인자 뭐 이렇게 이 역할을 해요. 그건 싱가포르는 나라가 경제 대국 아니에요 싱가포르가 나라가 700만 내지 900만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경제 대국이에요.



거기가 싱가포르는 나라에서 지하 경제를 그놈이 어느 정도 저기 돈은 어디서 내냐 여기서 다 저기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종업원들은 그 반면에 다 잘려 갖고 이제 직업이 없어진 거지. 그 공장이 잘 돌아가서는 인천공장 우리 때만 해도 한 1500만 내지 2천 명 있었는데 그 인원이 아니 아무것도 없어요.

한국 유리가 맨 처음에 월급날 딱 되면요. 인천 한국 유리 앞에 엄청 왔어요.

술집 여자 와서 술값 받아야지 술 공짜 먹고 술값 안 내니까 여자들이 숨어 있다가 잡아가고 술값 달라 월급 받았으니까 할 수 없어 거기서 내고 그런 걸 내가 많이 봤어.

나는 술 담배를 안 하기 때문에 거기를 이렇게 또 아무 생각 없이 걸었는데 다른 놈들은 누구 아니 뭐 이러다가 탁 나오다 보면 먹살 잡는 거야. 그러면 술값 내려면 월급은 받았으니까 만 원어치 먹었으면 할부한테 5천 원은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도 그 여자들은 5천 원이라도 받으면 뭐 그.래 술집에서는 한국 유리 근처에 있는데 술집 화수동 저기 동인천 이렇게 나오면 한국 유리라고 하면 뭐 안 보고 그냥 술 외상을 막 풀어. 다른 데는 어떤 사람이 와서 외상 하면 안 줘요. 근데 한국 유리 다닌다면 해줘요. 돈 많이 번다는 거 알죠.

인천에서 제일 돈 많이 주는 회사가 경인LNG라고 있어요. 저기서 한 100명도 안 돼. 거기가 제일 임금이 비싸고 그다음에 한국 유리가 임금이 두 번째. 그 앞에 있는 대우자동차 있고 대우 중공업이 있고 그런데 거기가 한국 유리만 못해요. 대우자동차 뭐 이런 거 다 부평 있잖아요. 한국 유리만 못해요.

현대자동차 있죠? 현대자동차에 나가 있는 우리 한국 유리 파견하는 아이가 2명 내지 많으면 3명이 있었는데 보통 2명 나가던 그때 현대자동차 반장놈들이 우리 한국 유리 놈 보고 야 얼마 받아? 그래서 돈 봉투 이렇게 보면 깜짝 놀란 거야. ‘야 그거 한국 유리 어디 있어?’ 인천 어디에 있다 그러면 ‘아니 그런 회사에 조그마한 회사가 왜 돈을 그렇게 많이 주냐’ 그때 현대 자동차보다 한국 유리가 돈을 많이 받았다. 왜 나가 있냐면은 현대자동차의 차유리를 한국 유리에서 다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유리 사람이 한 놈이나 두 놈 나가서 꼭 거기 있었으니까 그래서 아는 거지. 그럴 때 얘기하더라고. 그 사람들이 현대자동차가 가니까 현장 반장이 아주 그냥 **세도가** 막 넘어 터뜨려요.

반장 만나 인마 너희들 반장 때고 여기 나와서 뭐 하는 거야 그놈들이 나갈 때 여기서 조장 정도 되는 담당 정도 되는 애들인데 거기 나가서 반장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야.

우리 인천 유리에서 내보낼 때 반장으로 해서 내보내. 근데 반장은 아니지만 거기 가서 귀식 좀 하려고 반장 내 전화 오면 어 김 반장 바꿔주시오.

그러면 사무실에서 반장인 줄 알고 거기 있는 놈들 다 합류해서 월급 보면 월급이 그렇게 많아서 그놈 회사에서 뭐 그런 애가 있어 이럴 정도로 대우를 받고, 사람이 돈 많이 받는다면 그런 데 가서도 대우받는 거야.

거기 가서 돈 조금만 준다면 야 이 똥통한 거 그런 회사 다니냐 뭐 이러는데. 그래서



한국유리 최 회장이라는 사람이 종업원들을 위해서 많이 알게 모르게 (해주셨죠). 근데 최 회장이라는 사람은 장로예요. 그리고 그 사람 평안북도 선천 사람이예요. 우리가 평안북도 신의주 사람인데 내가 딱 들어가니까 평안북도 신의주니까 ‘최 회장 끄나플인가’ 생각하더라고. 다른 동료들 직원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평안북도니까 갔더니 사장님하고 같은 동네네. 그러면서 ‘너 사장 아냐?’ 뭐 그럼 모른다고 그러잖아. 아 몰라요. 그래도 대우를 받아. 직장이라는게 그러니까. 반장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어디야’ ‘신의주입니다.’ ‘신의주, 최 회장 잘 알아?’ 그때는 사장이었지. ‘최 사장 잘 알아?’ 미적미적하면 ‘사장 끄나플인가봐’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대우받는거야 그게 직장 생활이면 그래요.

곽은비: 선생님 혹시 그때 96년도에 퇴사하시고 퇴직하고 나서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지무환: 그때가 이제 어려웠죠. 그때가 사실 퇴사하고 나서가 그때가 문제예요.

그때 퇴직금 받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잘해야 되는 거야.

그때 한국 유리 퇴직금 받을 때 보통 제일 조금 받는 사람이 1억 한 3-4천 애네들은 근무한 지 얼마 안 되고, 그다음에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2억 4500. 그때 2억 4500원 받은 애들이 저기 뭐야 곽인호 같이 들어간 애들이 그때 그 사람들이 퇴직금을 이놈들이 벌써 관둘 걸 알고 잔업을 많이 했더라고. 그래갖고 저기하고 같이 연배가 비슷하니까 개 45년생이거든. 근데 이 관둔 일이 있었는데 그걸 인천고 나온 놈인데 그놈이 손 모야 이 손 반장이라고 그랬는데 개가 그때 당시에 2억 4천. 내가 1억 8천 받을 때 나는 그때 관둘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그냥 이렇게 해서. 왜 그러냐면 공무원에서 있다가 그 무렵에 돼서 끝내 갔을 때는 생산부에 쫓겨나 갖고 한 몇 년 있었거든.

그러니까 좀 힘도 들고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 어떻게 관됐어요. 근데 그때 손 반장 그놈이 2억 4천 받아 갔는데, 이럴 때 다들 한 1억 한 7~8천원을 받았다고 평균 보고. 내가 나올 때 2~300명 나왔는데 우리가 퇴직보가 딱 나오니까 조그마한 버스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우리를 태우는 거야. 그래 갖고 자기네 은행으로 곧바로 가는 거야.

그거 거기에 사기꾼이 있죠. 한국 유리 퇴직하는 놈이 이백몇 명 있는데, 200명 퇴직금 명세서를 다 알고 사기꾼들이. 우리가 버스 탈 때 그 버스가 제 은행 문 앞에 가는 건 별로 사기 안 당한 거야.

영동한 곳으로 가는 것도 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썰 까고 그러면 사기당할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사기당하기 시작해갖고 내가 관두고 나서 한 3년 내지 5년 되니까 780명 정도 중에 한 반 이상은 사기를 당해 가지고 다들 고생스럽더라고.

근데 나는 뭘 했냐면은 일단은 퇴직금 갖고 부천역사라고 하는데 그 지하상가를 받았어요. 가게를 하나 거기서 장기 임대를 했어요.



거기서 한 달에 한 240-50만 원이 나왔어요. 한 20년 동안 그러니까 그게 우리 아이들 공부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되지. 가게 두 개 사는 게 자리가 좁아 갖고 그래도 240만 원 나왔는데 그때만 해도 좀 덜 받았어요.

그게 사실 한 거의 300만 원 나오는 자리인데, 그때만 해도 조금 하향한 게 하여튼 240만 원 갖고 20년 나오니까 그게 도움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그리고 나서 뭘 또 했냐면은 경비 생활을 했어요.

10. 한국유리 은퇴 후 이야기 (01:17:11~01:27:47)

지무환: 내가 나와서 경비 생활했다는 노걸쪼걸 돼서 사람 대우 못 받고 경비 생활 한 거예요. 그래도 경비 생활을 해서 한 달에 내가 관둘 때는 한 200만 원 가까이 받았어요. 그전에 맨 처음에 내가 들어갔을 때는 60만 원 받았어요. 60만 원이 어떤 돈이냐 하면은 한국 유리 다닐 때 한 달에 360만 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6분의 1을 받은 거야. 그걸 안 다니는 거야. 사람들은 사람들이 그게 참 잘못 된 거야. 나는 그거 다녔는데 그걸 안 다녀. 6개월 받아야 한 달 월급 받는 거야. 근데 난 다 다녔어요. 그게 생활에 도움이 돼요. 그걸로 생활하는 데 도움이 돼. 그때만 해도 아이들 학교 다니고 그럴 때. 그리고 나는 국민연금 있죠. 국민연금을 그때 우리가 한 8년 정도 부엌거든요. 그때 내가 60 몇만 원 나왔어 61만 원인가 그것도 나왔어요.

그다음에 61만 원 62만 원, 그다음에 집세. 경비 돈 나오고 그걸로 갖고 아이들을 학교 대학교까지 보냈어요. 내가 장가도 늦게 가고 아이도 좀 늦어갔고 내가 관둘 때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됐거든.

근데 개네들 다 대학교 가고. 그 사이에 또 뭐 했냐면 내 동생들이 많았어요.

내 동생들이 나보다 많이 어린 애들이 있었고 내 바로 밑에 있는 동생 놈은 한양대학교 보내고 그 밑에 있는 놈은 경희대학교 보내고, 그 밑에 있는 여동생은 인천교대 나오고 근데 여기서 인천교대 나온 애가 제일 똑똑해.

애는 인천교대에서 1, 2, 3등 안에 들어갔고, 개는 발령 받으면서 자기 여자이니까 자기 밥벌이 하는데, 두 번째 나온 경희대학교 나온 놈 이놈도 인천 조선 다니고 어찌고저찌고 한 10년쯤 다니더니 10년 후에 가서 보니까 관뒀더라고. 왜 관뒀냐 그러니까 조금 많이 맞아서 흘뜨려서 관뒀다고 그런 것 같아. 그 위에 있는 한양대학교 다니는 이놈은 공부를 따라가서 하다가 너무 힘든지 이게 정신 이상이 돼 갖고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나는 아이들 대학교 세 놈을 다 가르쳤는데 결과는 다 안 좋은 거지.

여동생만 자기 밥벌이 하고 중간 놈은 그냥 중간. 맨 윗놈은 완전히. 지금도 병원에 있으니까



그렇게 나 나름대로 하느라고 했는데 결과는 뭐 썩 좋은 표현을 못해.

곽은비: 경비일은 어디서 하셨어요?

지무환: 경비도 여러군데에서 했지.

곽은비: 한 곳에서 쭉 하신 게 아니구나.

지무환: 경비는 이렇게 다니다가 내일 아침에 보고 반장이 와서 보고 '지무환씨 어떻게 주민하고 다툼 일이 있어요?' 생각도 안 나는데 아닌데 그러면 '그래요?' 그러고 간다고 그리고 그다음 날 와서 '지무환씨 '네?' 그러면 ' 다른 데 가서 어디 가서 일해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왜 왜 그러세요?' 그러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민원이 왜 들어올까 알고 보니까 내가 제일 처음 다닌 데가 공장 경비할 땐 그러지 않았어요.

공장 경비도 한 7-8년 했거든요. 공장 경비를 다닐 때는 그렇지 않은데 아파트 경비할 때는 주민들이 음식물 버리는 데다가 음식 버리고 음식물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주민들이 음식물 쓰레기 갖고 나오면 안 버리고 거기다 툇 놓고 가고 뭐 아무 데나 막 넣고 가고 막 그걸 분간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경비들이 불러와서 '아줌마 이거 이거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 통에다 넣고 이거 뭐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 여자들이 '알았어요.'

그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야 '아저씨 다니고 싶어요? 안 다니고 싶어요?'

그러면 '아줌마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아니 아저씨는 왜 뻑뻑했어요? 아저씨 앉아서 하면 됐지' 뭘 그 자기 바쁘는데 우리가 얘기 '아니 아줌마가 음식물 갖고 온건데 내가 왜 그걸 처분합니까?'

거기 음식물 버리는 데가 따로 있는데 '네 알았어요' 하면서 가고 그다음에 관리 사무실에 가서 직접 가서 '몇 초소에 있는 사람 그 말 많고 그러니까 그 사람 같이 근무 우리 못 해' 그러면 관리실에서는 우리 자르면 쉽지 그 주민하고 다툼 필요가 없지. 그래서 많이 자르게 되더라고.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것도 나중에는 이제 그런 걸 저런 걸 알아.

곽은비: 저희 할아버지를 생각하니깐, 저희 할아버지가 그 이후로 계속 장미에 계셨다 보니까, 저는 오래 다니셨을 줄 알고 한번 여쭙봤었는데. 그렇구나.

지무환: 제가 곽규언씨가 거기 오래 있어갖고 장미 아파트 한 동이 있거든. 곽규언씨는 거기 경비고 거기 관리실이 책임자도 되고, 다 혼자서 다 하는 거야. 통반장 다.



곽은비: 저희 할아버지 재작년까지 하시다가 이제는 집에 계세요. 엄청 오래 하셨어요.

지무환: 그 오래 했네.

곽은비: 78까지 하셨으니까.

지무환: 오래 한 거 내가 75세까지 했거든. 오래 한 거예요. 그래서 곽규언이가 어떻다 하는 건 다 한국 유리 관둔 사람들 다.

곽은비: 진짜요? 너무 신기하다. 저희 할아버지는 아직도 그 생산부 같이 계시던 할아버지들이랑 한 두 달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계속 밥 드시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지무환: 곽규언이가 늦게까지 돈 벌었으니까 조금 여유는 있지. 그전에 관둔 사람들 힘든 사람들 많아요. 이제 그 사람들은 나오지도 못해. 그런 데 나오려면 회비라도 내야 되는데 회비 낼 돈이 없어서 못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인천 저기 뭐야 친목회를 하거든요. 인천공고 내가 건축과 24인데 그거 친목회 하면 많이 나오면 한 20명 나오고 조금 나오면 한 10명 정도 나오는데 거기 이제 점차 사람이 줄거든요. 왜 주냐, 돈이 없어서 회비를, 회비가 많지 않아도 3만 원을 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못 나온 거예요. 그리고 가끔들 보면은 치매 걸리는 애들도 있고

곽은비: 그렇죠. 연세가 이제 많으시니까.

지무환: 나이가 먹으니까 한 번은 저기를 갔는데 어떤 놈이 추석 때 이제 밥 다 먹고 나가는데 이놈이 신발을 안 신고 맨발로 나오는 거야. '야 인마 너 왜 신발 어딴어?' 뭐 어찌고저찌고 알고 보니까 치매야. 아, 그래서 내가 나이가 먹었어. 그렇게 되면 그 인간이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 더 나빠지면 나빠지지. 그러니까 그런 걸 하려면은 자기가 혼자가 되고. 한국 유리 관두고 나서 곽규언 씨만 하는 사람도 드물어요. 곽규언 씨처럼 그렇게 늦게까지 돈 벌었다는 자체가 그 사람의 생활력을 뒷받침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맨 처음에 나와갖고 돈 1억 벌었다고 뭐 저기 한 것처럼 이렇게 행사하는데 거의 다 힘들어요. 그런 애들은 내가 아는 것만 해도 내가 공무원도 좀 알고 생산부서 아이들 돌아가는 것도 아는데 그놈들이 다들 고생하는 거지 뭐 맞아

곽은비: 이거는 그냥 별도로 제가 궁금한 건 선생님이 인천 워낙 오래 사셨으니까 저희



할아버지 살고 있는 용현동 인하대학교 후문쪽 용현동에 옛날에 와룡 소주 공장이 있었다.
막 이랬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지무환: 와룡소주는 여기 있어요. 송의동. 와룡 소주는 송의동에 있어 갖고 우리 집 앞에
있죠.

지금 우리 집 앞에 편의점 비슷하게 이제 조그마한 슈퍼가 있는데 그게 와룡 소주 자리예요.
그리고 여기가 제물포 뒤에가 또 조일양조장이 있었고

곽은비: 그럼 선생님 와룡소주 쪽 사셨다면 요 앞 역 쪽 사시는구나. 제물포 시장 가기 전에
이쪽에

지무환: 그 굴뚝이 얼마 전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굴뚝이 없어졌지 이제.

곽은비: 그렇구나. 네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선생님 혹시 학익동 유리 창고나 학익동
관련해서 사진 자료나 이런 건 없으시죠?

지무환: 그런 거 없죠. 우리 때 사진 찍고 뭐 그런 거는, 지금처럼 사진 못 찍고 했는데
지금은 뭐 사진 찍고 싶으면 이런 핸드폰을 찍으면 되는데 그때는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사진 갖고 있는 건 없어요.

곽은비: 혹시 선생님 메모해 오신 거 봐도 구경할 수 있어요? 되게 메모를 빼곡하게 잘 해다
주셔가지고. 유리 원료 이런 것까지 다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우와 이게 근데 이거를 다
기억하시고 적으신 거죠? 선생님 대박이다.

지무환: 나는 좀 다른 사람하고 조금 틀린 게 약간 학구적인 면이 있어요. 나 지금도 저기
도서관 가서. 내일은 여기 치과 병원 예약돼 있거든요. 치과 병원에 예약 된 다음에 어느
정도 나오면 또 도서관 가서 그냥 아마 계속 있을 거예요. 도서관 가면 책을 많이 봐요.

곽은비: 도서관은 수봉도서관 가세요?

지무환: 수봉도서관, 우리 집에서 바로 가면 한 15분 정도 걸려요.

곽은비: 혹시 이거 사진 하나 찍어가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